

파츠파츠 임선옥(PartspARTs IMSEONOC)의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디자인 연구

정 하 정 · 박 주 희*

계명대학교 공예디자인전공 조교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현대패션산업의 윤리성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추구활동은 제품의 ‘수명연장’이라는 초기목적에서 ‘가치 제고’를 통한 소비자 만족으로 그 이상을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 추구 소비자를 위한 자연친화적이면서 현대적 세련됨이 있는 디자인을 위한 방법은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의 윤리적 패션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와의 공감을 통한 패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 파츠파츠 임선옥의 특성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그리고 디자이너 인터뷰를 통하여, 소재와 제작공법, 평면 재단의 창의적 활용, 지속가능경영의 측면에서 파츠파츠 임선옥의 브랜드 특성을 도출하였다.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위해 파츠파츠 임선옥은 한 종류의 소재를 개발사용하고 소재 특성을 고려한 고압력 접착공법을 하이패션에 접목하였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커팅 방식을 개발하고 패턴의 분할과 직물교환 방식을 통해 상업적이면서도 장식적인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한편 파츠파츠 임선옥은 환경을 고려한 윤리적 각성으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을 재사용하고, 슬로우 패션을 지향하며 가치 있는 디자인 생산철학을 보여주었다. 파츠파츠 임선옥은 협업을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마케팅의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사회참여적 윤리실천의 실정을 밝혔다는 점, 상업적 목적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법의 자료를 구축한 점, 나아가 미래 패션디자인교육의 예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파츠파츠 임선옥,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네오프렌, 고압력 접착공법, 슬로우 패션

I. 서론

런던패션대학(London College of Fashion, LCF) 지속가능패션센터의 교수이자 디자이너,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케이트 플레처(Fletcher, K.)는 지속가능패션을 위한 해결책으로 패션산업의 대량생산 절제, 디자이너의 가치지향 디자인개발, 소비자의 윤리적 패션 미학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들었다.¹⁾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는 친환경 소비의 확대를 이루었으며, 이에 힘입어 자연친화적 방법을 활용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생산이 패션산업에 활발하게 반영되고 있다.²⁾

본 연구는 2011년에 런칭하여 자연친화적 디자인 방법으로서 단일 소재를 사용하여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하고 있는 ‘파츠파츠 임선옥(PartspARTs IMSEONOC)’에 대한 주목에서 시작되었다.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으로서,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소재 활용과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디자인 생산을 위해 연구되고 있다. ‘파츠파츠 임선옥’은 최근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폐기물 최소화 문제를 패션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한 사례로서, 이 브랜드에 대한 심화 연구는 미래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할 뿐 아니라, 인류의 공동과제인 환경 문제 해결로 패션의 윤리성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의 윤리적 패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패션을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 ‘파츠파츠 임선옥’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특성에 대해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현대 패션의 사회참여적 윤리실천의 실정을 밝히고, 상업적 목적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법의 자료를 구축하며, 나아가 미래 패션디자인교육의 예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파츠파츠 임선옥에 나타난 창의적 특성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는 첫째,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개념과 역사를 고찰하고, 둘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법을 도출하며, 셋째, 디자이너 임선옥과 ‘파츠파츠 임선옥’의 2011 SS부터 2015 FW까지 총 10 시즌의 컬렉션을 분석하고, 넷째, ‘파츠파츠 임선옥’에 나타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는 지속가능성 연구문헌과 파츠파츠 임선옥의 컬렉션, 기사, 인터넷 검색을 통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한다. 인터뷰는 질문의 적절한 변경이 가능한 반표준화 면접법을 채택, 2015년 5월에 서울 부암동에 위치한 ‘파츠파츠 임선옥’의 스튜디오에서 60분 동안 실시하였으며, 두 차례의 이메일을 통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인터뷰 문항은 임선옥 개인의 역사와 작업에 대한 열정, ‘파츠파츠 임선옥’이 단 한 가지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와 디자인 과정에 따른 소재 활용의 특징, 제작 방법 중 하나인 고압력 접착 공법은 무엇이며 개발하게 된 동기, 선행연구가 제안한 제로 웨이스트 패턴 방법과 파츠파츠 임선옥의 제로 웨이스트 패턴 방법의 차별성, 제로 웨이스트 패턴의 상업적 활용 방법, 디자인과 제품 생산 프로세스의 특허 출원 내용, 경영 철학과 마케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미리 전달되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실증적 근거의 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II.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1. 사적 고찰

패션에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란 패션 디자인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의류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과정에서 기획하는 기술이다³⁾. 사실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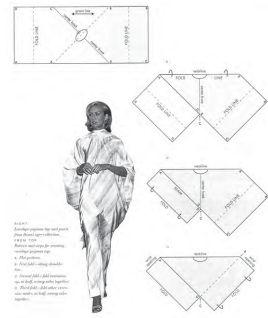
환경을 고려한 최근의 시도 이전에도 존재했던 방식이다. 정교한 재단법이 생기기 전, 고대 그리스에서 입었던 긴 사각형의 직물을 몸에 두르는 히마티온(Himation), 치톤(Chiton)으로부터 인도의 사리(Sari), 일본의 기모노(Kimono)에 이르는 전통복식이 제로 웨이스트의 개념을 갖는 것이다.⁴⁾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이루어진 제직 기술의 기계화는 재료의 풍요를 가져와 20세기 이후 현대 패션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이 추구되는 결과를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혁신적 재단 기술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⁵⁾ 패션의 역사에서 혁신적 재단의 실험을 보여준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서 프랑스의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를 들 수 있다. 비오네는 1/2 크기의 마네킹에 드

레이핑으로 재단의 실험을 하였으며, 1919년 2개의 사각형 직물을 겹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드레스를 만들었다<그림 1>. 1977년 미국의 할스톤(Halston)은 사각형의 직물을 대각선으로 접어 직물 전체를 활용하는 재단 방식으로 드레스 디자인을 완성하였다<그림 2>. 1986년 일본의 요시키 히시누마(Yoshiki Hishinuma)는 삼각형 조각을 서로 이어 붙여 옷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디자인 스케치를 배제하고 패턴의 활용만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그림 3>. 1990년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실험적 디자인 추구는 현대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의 연구에 큰 영감이 되었는데, 특히 1997년부터 연구한 에이폭(A-poc)<그림 4>은 편물의 재사



<그림 1> 마들렌 비오네의 드레스 패턴
(출처: Zero-waste fashion design, 2013, p.51)



<그림 2> 할스톤의 드레스 패턴
(출처: Zero-waste fashion design, 2013, p.42)



<그림 3> 요시키 히시누마의 삼각형 조각패턴
(출처: Zero-waste fashion design, 2013, p.40)



<그림 4> 이세이 미야케의 에이폭
(출처: Zero-waste fashion design, 2013, p.34)

용으로 재화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가 어떻게 부분별로 자르느냐의 결정에 따라 개성적 디자인이 되는 혁신적 기술이었다.⁶⁾

20세기 초부터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적 디자인을 위해 시도되어온 다양한 재단의 실험은 현대 패션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1세기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법의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되어 현대 패션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2. 선행 연구 고찰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은 21세기 들어 패션의 윤리성 추구와 함께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호주의 시드니 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에서 2008년부터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연구하여 2013년 박사학위를 받은 티모 리사넨(Timo Rissanen)은 패션디자인의 생산과정에서 평균 15%의 직물이 버려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옷 제작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비교 분석, 패션디자인 과정 중에 직물 폐기물이 남지 않는 패턴을 개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마크 리우(Mark Liu),⁷⁾ 줄리안 로버츠(Julian Roberts),⁸⁾ 홀리 맥퀸란(Holly MaQuillan)⁹⁾ 등 창의적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교류를 통해 연구를 발전시키고, 전시와 패션쇼를 통해 그 결과물을 발표하며,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다.¹⁰⁾

국내에서는 박혜원(2012), 국혜승(2014), 조신원(2015) 등이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박혜원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디자인 방법으로 제로 웨이스트 커팅(Zero-waste Cutting), 서브트랙션 커팅(Subtraction Cutting), 바이오 쿠티르(Bio Couture)에 대해 논의하였다.¹¹⁾ 국혜승은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법을 퍼즐커팅(Puzzle Cutting), 폴드 커팅(Fold cutting), 서브트랙션 커팅, 피겨 커팅(Figure Cutting), 모듈 커팅(Module Cutting)으로 분

류하여 고찰하였으며, 이외에도 봉제가 필요 없이 몸의 라인에 따라 입체의 옷을 제작할 수 있는 워빙, 니팅, 라텍스, 스프레이 분사, 3D 프린팅 등과 폐기 재화의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¹²⁾ 조신원은 직쏘우 퍼즐 커팅, 서브트랙션 커팅, 레이어(Layer)의 프로토타입 제작실험을 통하여 교육적 관점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¹³⁾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 나타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법은 니팅과 워빙, 입체재단과 혼합된 평면재단 방식, 그리고 단일 방식의 평면재단의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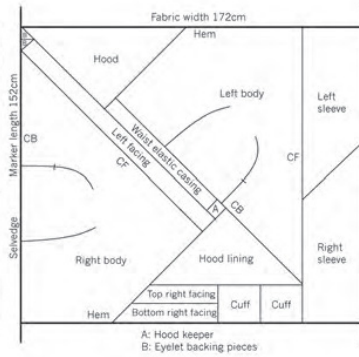
‘니팅과 워빙’을 통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으로는 편물 패턴 조각을 이어서 구성하는 방식, 니트와 워브를 입체구성하여 솔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 이세이 미야케가 연구한 에이폭 방식¹⁴⁾이 있다.

‘입체재단과 평면재단의 혼합’ 방식으로는 서브트랙션 커팅, 피겨 커팅, 폴드 커팅 방식이 연구되었다. 서브트랙션 커팅은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줄리안 로버츠가 고안한 방법으로 한 장의 큰 직물에 상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이용하여 접기, 말기, 뒤집기 등의 행위를 통해 실루엣을 만들어나가는 기법이다. 피겨 커팅과 폴드 커팅은 국혜승의 연구에서 분류된 방법으로 피겨 커팅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방식과 형태로 커팅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는 디자인 방식이며, 폴드 커팅은 구부리거나 겹치는 압력으로 입체구성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피겨 커팅을 사용하는 대표 디자이너는 홀리 맥퀸란이며, 폴드 커팅의 예로는 데이비드 텔퍼(David Telfer)의 점퍼와 이세이 미야케의 132 5. Issey Miyake와 같은 오리가미 기법의 구조적 제품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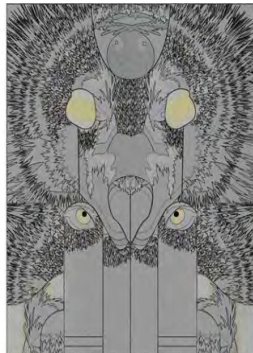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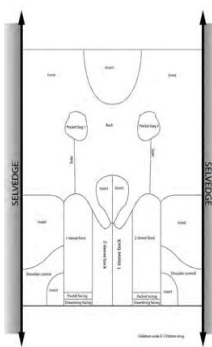
‘평면재단’을 통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으로는 제로 웨이스트 커팅, 직쏘우 퍼즐 커팅(Zigsaw Puzzle Cutting), 모듈 커팅, 레이어 방식이 연구되었다. 기존의 평면재단 방식에서는 원단에 패턴을 배열하고 재

단할 때 패턴 조각 사이의 원단이 폐기물이 되지만 제로 웨이스트 커팅, 직쏘우 퍼즐 커팅, 모듈 커팅, 레이어의 평면재단은 패턴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물리게 배치하여 직물을 재단하므로 폐원단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커팅은 다투가 없는 원형(dartless sloper)을 활용해 만든 패턴 조각을 기하학 형태로 교정하여 퍼즐처럼 맞추어 배치하고, 조각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방식이다. 티모 리사넬이 이 재단 방식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그림 5>¹⁵⁾ 피겨 커팅을 사용한 홀리 맥퀸란도 제로 웨이스트 커팅의 한 방법으로서 패턴 조각을 거울 이미지로 배치한 트윈 세트(Twinset)를 창안하였는데, 그는 패턴 조각을 꼭

선으로 교정하여 봉제 후 입체적인 실루엣이 용이하도록 디자인하였다<그림 6>¹⁶⁾ 직쏘우 퍼즐 커팅¹⁷⁾은 티모 리사넬이 그의 박사논문(2013)에서 마크 리우의 작업방식을 설명하며 처음 사용한 명칭이다. 기하학 모양의 패넬을 지그재그로 절개하여 시접이 바깥으로 나오게 봉제한 마크 리우의 직쏘우 퍼즐 커팅 방식은 큰 범주로서 제로 웨이스트 커팅에 포함된다. 한편 모듈 커팅과 레이어는 모두 같은 모양의 도형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서 이 재단 방식을 국혜승은 모듈 커팅으로, 조신원은 레이어로 명명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방법은 <표 1>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림 5> 티모 리사넬의 제로 웨이스트 커팅
(출처: Zero-waste fashion design, 2013, p.100)



<그림 6> 홀리 맥퀸란의 제로 웨이스트 커팅
(출처: Zero-waste fashion design, 2013, p.55)



<그림 7> 마크 리우의 직쏘우 퍼즐 커팅
(출처: Zero-waste fashion design, 2013, p.35)

<표 1>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방법

| 디자인 방법 | | 디자이너 | 연구자 |
|-------------------|-------------|---|---|
| 니팅 / 위빙 | | 이세이 미야케 | 줄리안 로버츠 (2002-) 마크 리우 (2007-) 티모 리사넨 (2008-) 홀리 맥퀼란 (2011-) 박혜원 국혜승 조신원 |
| 입체재단 + 평면재단 | 서브트렉션 커팅 | 줄리안 로버츠 | |
| | 피겨 커팅 | 홀리 맥퀼란, 이세이 미야케 | |
| | 폴드 커팅 | 데이비드 텔퍼, 이세이 미야케 | |
| 평면재단 | 제로 웨이스트 커팅 | 티모 리사넨, 홀리 맥퀼란, 사무엘 포르모, 칼라 페르난데즈, 앤드류 허그, 프레드릭 반 웨델파로우, 피오나 버킹햄, 올리 탱, 타라 세인트 제임스, 캐롤라인 프리브, 제니퍼 위티, 줄리아 뎀스텐 | |
| | 직소우 퍼즐 커팅 | 마크 리우 | |
| | 모듈 커팅 / 레이어 | 카를로스 빌라밀, 스테파니, 버버 쇼퍼, 피온 반 발구이, 아리엘 비숍 | |

III. ‘파츠파츠 임선옥’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디자이너 임선옥과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 ‘파츠파츠 임선옥’에 대해 고찰하고, ‘파츠파츠 임선옥’의 컬렉션에 나타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자이너 임선옥과 ‘파츠파츠 임선옥’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임선옥은 업무상 방문한 일본에서 블랙룩(Black look)의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에게 매료되어 패션디자이너로 전업을 결심하였고, 1993년 일본 동경의 문화복장학원(Bunka Fashion College)을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1996년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아’라는 의미를 지닌 독특한 감성의 브랜드, ‘이고(EGO)’를 설립한 임선옥은 ‘시대와의 교감으로 이해되는 트렌드를 따르며 기본에 충실한 작업에는 진부하지 않은 새로움이 있다’라는 디자인 철학으로 패션을 예술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울패션아티스트협회(S.F.A.A)의 회원이기도 한 그녀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컬렉션에 계속 참가하고 있으며, 전시와 퍼포먼스, 예술가와의 협

업 등 다수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2003년에는 대중상의 상상상을, 2004년에는 모엣&상동 아시아 패션 트리뷰트상을, 2014년에는 코리아패션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임선옥은 2003년에 아방가르드 실루엣과 소재의 부조화로 해체주의 패션을 표방하는 브랜드, ‘임선옥(IMseonoc)’을 런칭하고 이를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2011년에는 ‘Create ZERO WASTE’라는 콘셉트의 컬렉션을 기획하며 ‘임선옥’ 브랜드에 ‘파츠파츠’를 추가하여 ‘파츠파츠 임선옥(PartspARTs IMSEONOC)’으로 명칭변경을 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수입이 늘어가는 가운데, 소자본 패션 브랜드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국내 패션산업의 현실에서, 시대를 반영하며 명확한 정체성을 지닌 브랜드 가치에 집중한 결과이다. ‘파츠파츠 임선옥’은 분할, 구분의 개념인 파트(part)에 부분의 합이라는 의미의 S를 더해, 패션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소통을 추구하며 ‘ART’를 더욱 더 의미 있는 패션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닌다.¹⁸⁾ ‘패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실험적 시도를 통해 ‘파츠파츠 임선옥’은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보편화를 위한 국내 패션브랜드의 첫 사례가 되었다<그림 8>.

PartspARTs = ZERO WASTE



패션 패러다임의 전환

단 하나의 소재만을 사용하여 소재의 낭비를 줄이는 디자인 방식을 채택, 재제와 조율을 통한 시스템 의류 생산 방식과 고압력 접착 공법의 새로운 생산 기법을 제시하여 생산공정 전체 과정을 디자인한다.



<그림 8> 파츠파츠 임선옥의 브랜드 콘셉트와 2013 FW 컬렉션 작업에서 남은 원단 폐기물 (출처: 파츠파츠 임선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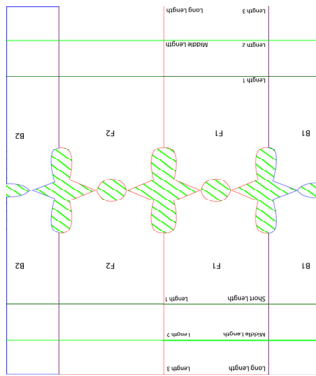
2. ‘파츠파츠 임선옥’의 컬렉션 분석

‘파츠파츠 임선옥’은 매 시즌 새로운 패턴 방식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장식성도 지닌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실천하였다. 기본적인 패턴은 다투가 없는 원형(dartless sloper)을 활용하여 앞뒤 패턴을 만들고, 이를 퍼즐처럼 맞추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나아가 패턴 내부를 분할하여 재단과정에서 각기 다른 색상 혹은 질감의 원단이 서로 교환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통해 장식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9>는 기본 슬리브리스 원피스 패턴으로서 긴 길이(Long Length), 중간 길이(Middle Length), 짧은 길이(Short Length)의 3 조각 분할면을 가진다. 이 분할면은 원단의 교환 방식을 통해 전혀 새로운 디자인이 될 수 있다.

2011 SS 컬렉션에는 패턴의 분할선으로서 물고기의 비늘을 형상화한 곡선이 적용되었다. 반복되는 비늘 모양의 패턴 부분(Parts)은 다른 색상, 다른 질감의 소재로 교환되어 현대적인 조화를 이루었다<그림 10>. 2011 F/W 컬렉션에서는 보다 대담한 분할면과 색상을 시도하였다<그림 10>. 대담한 색상 배색은 모델의 은색 가발과 조화를 이루어 미래주의적 브랜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

다. 분할면 교환방식을 통해 DIY 개념의 시스템의 류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한 임선옥은 이 컬렉션을 계기로 다양한 색상의 조합으로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옷을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또한 2011 FW는 평면구조의 사각형 가방을 처음으로 발표한 시즌이기도 하다. 56인치 폭, 36인치 길이의 직물을 동일 크기로 레이저 커팅하고 사각형 2장씩을 고온으로 압착한 후, 핫멜트 필름(hot-melt film)을 부착하여 제작한 가방<그림 19>은 해당 컬렉션의 인상적인 피날레 완성에 기여하였으며,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여러 협업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는 디자이너 임선옥이 서울스 텐 쏘울(Seoul's 10 Soul)¹⁹⁾로 선정되어 유럽진출을 시도할 때 브랜드 콘셉트를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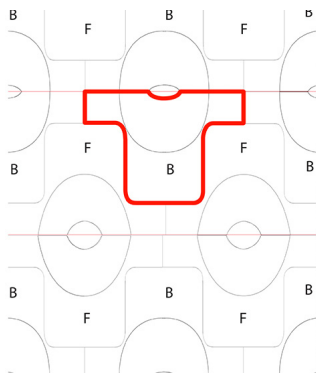
2012 SS 컬렉션에서 임선옥은 네오프렌이 여름철 소재로 적절치 않다는 소비자 반응을 반영하여 메쉬(Mesh)소재를 사용했으나, 브랜드 정체성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2012 FW 컬렉션에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디자인 정체성에 집중한, 단 한번의 커팅으로 이루어진 대담한 색상 분할의 시그니처 드레스가 소개되었다<그림 11>. 같은 형태의 앞뒤 패턴을 퍼즐 같이 맞추어 배치한 이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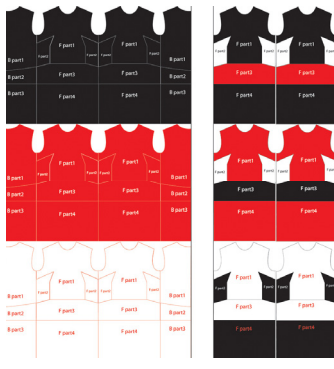
<그림 9> 슬리브리스 원피스 패턴
(출처: 파츠파츠 임선옥 제공)



<그림 10> 2011 SS, 2011 FW 패턴분할과 원단교환
(출처 : www.parts-parts.kr)



<그림 11> 2012 FW 제로 웨이스트 커팅
(출처: 파츠파츠 임선옥 제공)



<그림 12> 2013 SS의 제로 웨이스트 커팅
(출처: 파츠파츠 임선옥 제공)



는 네크라인의 동그란 모양을 제외한 재단 폐기물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다. 이 드레스의 유연한 곡선을 경계로 한 면분할은 다른 색상의 원단과 대비를 이루어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이 시즌에는 ‘파츠파츠 임선옥’의 시그니처 문양이 된 달항아리의 현대적으로 변형문양이 개발되었다. 임선옥은 “상업 컬렉션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상상력을 품은 패턴을 탄생시켰다. 쪼개고 합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이 무궁무진 개발된다.”고 했다.

‘물고기 여성(Fish woman)’을 주제로 한 2013 SS 컬렉션에서는 기능성 저지 소재의 실루엣 특성과 함께 면 분할에 따른 미적 대비의 독특한 디자인의 특성에서 보이듯 제로 웨이스트 패턴 커팅이 더 복잡해졌다<그림 12>. 언더 암(under arm)의 부분 절개, 다른 색상의 조합, 고압력 접착공법으로 창조된 넓은 솔기장식 등 모던한 감각의 독창적 실루엣을 지닌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임선옥은 인터뷰에서 “배색 원피스 패턴의 짧은 길이, 중간 길이, 긴 길이의 분할과 언더 암 부분의 2개의 패널을 포함한 5개의 패턴



<그림 13> 2013 FW 소재, 프린트개발
(출처: www.parts-parts.kr)



<그림 14> 2014 SS 필름 재활용
(출처: www.parts-parts.kr)



<그림 15> 2014 FW 원단, 필름 재활용
(출처: www.parts-part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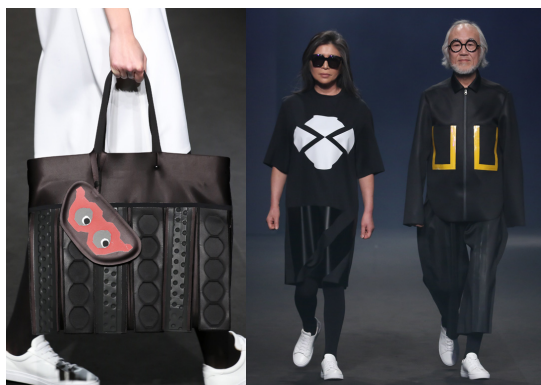
조각은 5mm라는 좁은 시점의 고압력 접착방식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배색장식의 가벼운 드레스 실루엣을 이룬다.’라고 하였다. 2013 FW 컬렉션에서는 기능성 저지 원단의 사이에 다양한 두께의 스펀지를 라미네이팅 기법으로 압착시킨 소재를 사용하였다. 단일 소재의 단조로움에 핫멜트 필름 패치의 그래픽 프린트로 변화를 주었다<그림 13>. 무게감이 있는 소재로 생성된 건축적 실루엣에 필름 패치의 표면장식을 엮어 입체와 평면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컬렉션을 완성하였다.

2014 SS에서는 대담하고 강렬한 색상조합과 비대칭 구도의 강조, 톤온톤(tone on tone)의 스타일링과 필름 패치의 조화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컬렉션을 보여주었다<그림 14>. 2014 FW의 ‘자연과 현대성의 경계에서(At the boundary of nature & modernity)’는 인위적이지 않은 풍경, 자연, 우주 등에서 보이는 무작위적인 변형들을 재해석하여 풀어낸 컬렉션으로, 의상을 제작하고 남은 유선형의 폐 소재는 코트에 접착하여 장식하거나 가방제작에 사용하였다<그림 15>. 이는 단순한 평면재단의 제로 웨이스트 커팅이 가지는 직선형태의 단조로움을 유선형 원단 조각의 다양한 활용으로 탈피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기원으로 돌아가라(Back to Origin)’를 주제로 한 2015 SS 컬렉션에서는 2012년에 개발된 파츠파츠 임선옥의 시그니처 문양, 달항아리를 입체구조로 보이게끔 그래픽 디자인하여 DTP로 적용하였다<그림 16>. 이는 입체이미지의 프린트로 평면재단의 납작한 의상이 지니는 단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2015 FW의 ‘퓨-템프러리(Fu-temporary: Future from primitive time)’ 컬렉션에서는 아프리카의 원시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문양과 달항아리 문양의 필름 패치를 부착하고, 브랜드를 대표해온 룽서즈 등 실용적이고 편안한 의상을 미래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인종과 연령, 체형의 모델에게 착용시켰다<그림 17>. 이 시즌에는 사계절 착용할 수 있는 소재개발에 진전을 보였고²⁰⁾, 남은 소재와 필름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양을 개발하였으며, 광택감의 필름 패치 외에도 엠보싱 가공을 적용하여 문양에 변화를 주었다. 사용하고 남은 필름은 2016 SS컬렉션에서 네가티브(Negative) 방식으로 재사용하였다<그림 18>.



<그림 16> 2015 SS 입체이미지의 DTP
(출처: www.parts-parts.kr)



<그림 17> 2015 FW 다양한 문양의 응용
(출처: www.parts-parts.kr)



<그림 18> 2015 FW-2016 SS 포지티브(Positive)와 네가티브(Negative)로 필름 재활용
(출처: 파츠파츠 임선옥 제공)

IV. ‘파츠파츠 임선옥’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특성

‘파츠파츠 임선옥’은 런칭 초기부터 단 하나의 소재만을 사용하여 소재의 낭비를 줄이는 디자인 방식을 채택하고, 해체와 조립을 통한 시스템의류 생산방식과 고압력 접착공법의 새로운 생산 기법을 제시하며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실천한다는 목표의식을 뚜렷이 하였다. 본 장에서는 ‘파츠파츠 임선옥’이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해 소재선택의 폭을 좁히고, 그 소재를 자르고 연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견

한 새로운 가능성을 브랜드 경영에 반영하고 있는 사례를 소재와 제작공법, 평면재단의 창의적 활용, 지속가능경영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소재와 제작 공법

임선옥은 첫 번째 브랜드 ‘이고’로 활동하며 좌절을 경험했다. 정기적으로 컬렉션을 개최하는 소규모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기획, 생산, 판매, 마케팅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패션시스템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그러나 이 경험은 ‘파츠파츠 임선옥’ 런칭의 거름이 되었다.

우선 임선옥은 자본력과 소싱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낭비도 줄이기 위해 시즌이나 트렌드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다. ‘프라이탁(Freitag)’, ‘플리츠플리츠(Pleatspleats)’, 리바이스(Levi’s)’ 등 단일소재로 디자인 차별화와 브랜드 정체성 정립에 성공한 브랜드들은 ‘파츠파츠 임선옥’의 런칭에 있어 긍정적 모델이었다. 임선옥은 “소재의 낭비를 줄이려고 단 하나의 소재만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의외성이 있으면서 신비로움까지 자아내니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²¹⁾라고 소재연구의 의지를 밝혔으며, 런칭 초기부터 이루어진 지속적인 연구로 매시즌 진화된 소재로 완성된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다.

임선옥이 선택한 단 하나의 소재는 네오프렌(neoprene)이었다. 네오프렌은 1931년 미국의 듀폰사에서 개발한 합성고무로서, 열, 기름, 물, 오존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 전선의 피복, 호스 등의 산업용으로, 그리고 자체 공기층으로 인한 보온성을 가져 잠수복으로도 사용되고 있다.²²⁾²³⁾ 1980년대 수영복, 스포츠 브라, 운동화 등에 사용되던 네오프렌은 21세기 들어 하이패션에서 시도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네오프렌이 화학재료로 만들어지므로 생산이 쉽고, 표면이 촘촘해서 프린트의 색감을 선명하게 표현하며, 형태를 잘 보존하여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잘 구현해내기 때문이다.²⁴⁾ 임선옥이 네오프렌을 선택한 이유는 선명한 색감이나 형태보존성 외에도 울이 풀리지 않는 성질로 오버로크가 필요하지 않아 의복 제작과정이 단축된다는 장점 때문이며, 나아가 시집처리로 인한 쓰레기가 없으므로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임선옥은 단일소재의 사용에 대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파츠파츠는 선이 예쁘게 잘리면서도 먼지가 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파츠파츠만의 하

나의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임선옥의 단일소재에 대한 의지는 ‘파츠파츠 임선옥’만의 소재 개발로 이어졌다. 컬렉션 초기에 사용한 네오프렌이 춘하용으로 적절치 않음을 확인한 임선옥은 네오프렌을 대체할 사계절용 소재를 물색했다. 결국 여름에는 냉감을 주고 겨울에는 온감을 주어 아웃도어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성 폴리에스터 저지원단을 채택하여 원단 사이에 스펀지를 라미네이팅 기법으로 압착, 네오프렌과 같은 기능을 지니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였다. 컬렉션이 거듭되면서 파츠파츠 임선옥의 소재도 진화하였다. 10mm 스펀지의 360g 추동용 소재는 보다 압착시켜 부피를 줄였고, 2mm 스펀지를 사용한 280g의 경량 소재를 개발하여 단 하나의 소재로 컬렉션 전체를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게 되었다. 임선옥은 인터뷰에서 “원단의 무게와 두께를 조절하여 만든 옷은 사계절 착용이 가능했다. 한 가지 소재의 사계절의 활용은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즌별 소재의 개발에 따른 낭비를 줄여 제로 웨이스트 커팅과 같은 개념의, 폐기물의 최소화란 의의를 갖는다.”고 했다.

네오프렌의 울이 풀리지 않는 성질은 고압력 접착공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시도로 이어졌다. 원단의 시집 결면에 연결 패널의 원단을 엮고, 접착 테이프를 사이에 삽입하여 160도 이상의 열로 녹여 붙이는 이 기술로 현재 ‘파츠파츠 임선옥’ 컬렉션의 70%를 생산한다. 임선옥은 이 공법의 도입에서 생산력의 문제와 한국 패션의 지속가능 문제를 함께 고려했다. 봉제 인력의 노후화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힘들어진 현실에서 재봉틀을 넘어서는 혁신으로 패션 산업에 활력을 주고자 한 것이다.²⁵⁾

‘파츠파츠 임선옥’은 단일 소재와 고압력 접착공법의 지속적 개발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 비용, 시간을 절감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2. 평면재단의 창의적 활용

‘파츠파츠 임선옥’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소재에서 시작하여, 제작공법을 혁신하며 재단방법의 탐구로 이어졌다. 임선옥은 인터뷰에서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은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접착 공법의 개발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개념을 갖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울이 풀리지 않는 소재, 무봉제 접착공법은 재단에서 5mm의 최소화된 시접만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평면재단을 통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파츠파츠 임선옥’의 패턴은 닥트가 없는 원형(dartless sloper)을 활용해 직선의 패턴을 제도하고, 이를 퍼즐처럼 맞추어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는<그림 9>, 평면재단을 통한 제로 웨이스트 커팅에 해당된다. 이는 목둘레와 진동둘레의 곡선 공간에서만 일부 원단 폐기물이 발생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2013 FW 컬렉션을 마친 후 임선옥은 6개월의 작업기간 동안 발생한 원단 폐기물이 3개의 비닐백 분량임을 보여주었으며<그림 8>, 이 또한 작은 소품이나 명함을 만드는 방식으로 완전히 소진했음을 밝히, 제로 웨이스트 커팅의 실효성을 확인해 주었다.

티모 리사넨을 비롯하여 많은 제로 웨이스트 커팅을 연구하는 디자이너와는 달리 임선옥은 매 시즌 패션위크에 참가하는 컬렉션 디자이너로서 철저한 계산과 공식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재단 방식을 추구한다. 임선옥은 기본 패턴의 내부를 분할하여 재단과정에서 각기 다른 색상 혹은 질감의 원단이 서로 교환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겹면과 뒷면이 같은 소재는 거꾸로 뒤집거나 좌우로 바꾸는 등의 변이가 쉬워 분할과 결합이 용이했으며, 마크 리우의 직썬 퍼즐 커팅에서와 같이 시접을 밖으로 나오게 처리하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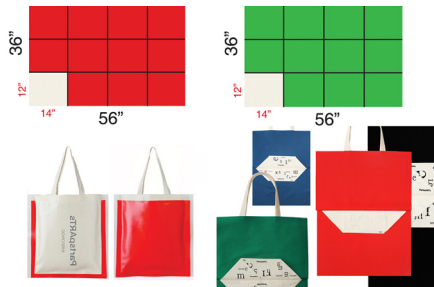
식성을 추구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해체와 조합의 실험은 단일 소재, 직선 실루엣의 단조로움을 해소시켰으며, 나아가 디자이너의 도전은 시스템의류 생산방식의 설계에 이르렀다. ‘파츠파츠 임선옥’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옷의 구성 조각, 색상, 사이즈를 공정 과정을 통해 조합하고,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제품생산 프로세스를 특허출원하였다.²⁶⁾ 이 구상은 자본의 한계로 인해 실제 유통되지는 못했지만, ‘파츠파츠 임선옥’ 디자인의 근본 원리로 기능하고 있으며, 패션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생산 프로세스 전략으로서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나의 소재를 통한 디자이너의 실험은 다양한 평면재단 방식을 통해, 또 부분의 조합에 의해 수많은 디자인으로 변주되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위한 직선형의 납작한 패턴은 큰 문양의 프린트를 가능케 하여, DTP, 핫멜트 필름 패치, 엠보싱 가공, 나아가 남은 재료의 재활용 등을 이용한 신선한 디자인이 무궁무진하게 개발되었다. ‘파츠파츠 임선옥’의 윤리적 디자인은 다수의 디자인, 다수의 품목, 다수의 시즌으로 이어지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3. 지속가능경영

‘파츠파츠 임선옥’은 슬로우 패션(slow fashion)을 지향한다. 생산자에게 슬로우 패션은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충분한 제작 기간을 거쳐 유행과 시간을 초월한, 미학을 담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차원으로 소비자에게 슬로우 패션이란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잘 표현해주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⁷⁾²⁸⁾ 닥터진 셔먼(Dr. Gene Sherman)은 패션이 개인의 지적 능력과 미적 정서를 반영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더 적게 사고, 더 좋은 제품을 사라(Buy less, buy



<그림 19> (왼쪽) Scanner bag (국립현대미술관),
(오른쪽) Ice Cakee bag (삼성리움미술관)
(출처: 파츠파츠 임선옥 제공)



<그림 20> 현대자동차의 더 브릴리언트 아트프로젝트,
'2013 Dream Society전'
(출처: www.parts-parts.kr)

better'라는 패션의 신중한 소비를 제안했다.²⁹⁾ 슬로우 패션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현상의 대안으로 패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러 실천을 포함한다. 즉 생산자는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고려하는 기술과 생산 공정을 도입하고, 소비자는 수선과 재활용, 기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³⁰⁾ 임선옥은 '파츠파츠 임선옥'의 런칭 동기에 대해 "트렌드를 따르며 빠르게 생산되고 버려지는 패션의 소모성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하며 좋은 제품, 전통이 있는 브랜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슬로우 패션 브랜드, '파츠파츠 임선옥'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되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과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브랜드의 철학을 대중과 공유하는 여러 활동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펼치고 있다. 디자인에서 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담아낸 매거진, '패딕트(FADDICT)'의 발간과 패션과 문화,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편집매장이자 디자이너의 영감이 충전되는 공간, '382 Play ground'의 운영 등은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창조에 집중하고자 한 시도였다.

'파츠파츠 임선옥'은 공연, 영화,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 철학을 대중들과 소통하며 발

견해왔다. '파츠파츠 임선옥'에 있어 협업 활동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영감의 원천이자 광고 없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전략으로도 기능한다. 우선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대표 아이템으로서 평면구조의 네모가방은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과 삼성리움미술관과의 협업으로 대중에게 예술로 다가갔으며³¹⁾ <그림 19>, 같은 해 '행복이 가득한 집' 25주년 기념호를 통해서 10만개의 지속가능 가방이 소비자와 만났다.³²⁾ 이후 '파츠파츠 임선옥' 컬렉션에서 이 평면가방은 유행과 시간을 초월한, 미학을 담은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선보였으며, 2014년 코오롱의 지속가능브랜드 '레코드(Re:code)'와 협업하여 자동차의 페타이어와 시트를 사용한 가방디자인으로, 2015년 예술의 전당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전시와 협업하여 작가의 색감을 담은 가방디자인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구체적인 제품 외에도 브랜드의 철학과 이미지를 공유하고 확산시킨 활동으로는 디자이너의 전시 참가와 문화공연의 의상감독 활동을 들 수 있다. 2013년에 현대자동차의 더 브릴리언트 아트 프로젝트(The brilliant art project), 'Dream Society전'에 함께 참가한 임선옥은 '입으면 옷이 되지만, 벗으면 예술이 된다.'는 콘셉트로 구조적인 형태의 옷을 발표했으며<그림 20>, 2014년에는 소치 동계올림픽의 한국 문화예술 공

연의 의상감독을 맡으며 현대와 미래의 한국을 표현했다.

의상을 계산하고 공식화하여 원단 폐기물 없이 제작하는 ‘파츠파츠 임선옥’만의 철학은 지속가능 경영으로 가치제고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로서 2013년 보그 이탈리아가 선정한 200개의 ‘A New Generation of fashion Designer’에 한국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³³⁾ 파리의 모드아트 디자인스쿨(MOD’ ART International)³⁴⁾과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Aalto University)³⁵⁾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방문하여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실험적 시도를 공유하고 이를 논문의 콘텐츠로 채택한 바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이너의 윤리적 패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패션을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 ‘파츠파츠 임선옥’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특성에 대해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개념과 역사,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방식을 고찰하였으며, 디자이너 임선옥의 역사와 ‘파츠파츠 임선옥’의 컬렉션을 분석하여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디자이너 인터뷰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파츠파츠 임선옥’의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특성은 소재와 제작공법, 평면재단의 창의적 활용, 지속가능경영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첫째, ‘파츠파츠 임선옥’은 단일 소재와 고압력 접착공법의 지속적 개발로 생산 과정에서 노동, 비용, 시간을 절감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기능성 폴리에스터 저지의 사이에 스펀지를 압착시켜 만든 ‘파츠파츠 임선옥’만의 소재는 사계절 활용으로 재고문제를 해결하였고, 시즌별 소재 개발에 따른 낭비를 줄였다. 또한 울이 폴리지

않는 소재의 성질은 오버로크가 필요하지 않으며 고압력 접착 공법이 가능하여 제작과정에서 시간과 노동자원, 폐기처리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 둘째,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파츠파츠 임선옥’은 다트가 없는 원형(dartless sloper)을 활용해 직선의 패턴을 제도하고, 이를 퍼즐처럼 맞추어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는, 평면재단을 통한 제로 웨이스트 커팅 방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패턴의 내부를 분할하여 재단과정에서 각기 다른 색상 혹은 질감의 원단이 서로 교환되도록 하는 해체와 조합방식을 고안했으며,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옷의 구성 조각, 색상, 사이즈를 조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의류 생산방식을 특허출원하였다. 셋째, 좋은 소재, 충분한 제작 기간으로 유행과 시간을 초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슬로우 패션 브랜드, ‘파츠파츠 임선옥’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며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과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브랜드의 철학을 대중과 공유하는 여러 활동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협업, 디자이너의 전시참가와 문화공연의 의상감독 활동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영감의 원천이자 광고 없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가능하고 있었다.

‘파츠파츠 임선옥’은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연구하는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제로 웨이스트 패턴 연구와 교육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매 시즌 패션워크에 참가하는 컬렉션 브랜드로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가치가 있다.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의 산업화와 보편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현대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파츠파츠 임선옥’에 대한 본 연구가 한국패션의 사회참여적 윤리실천에 대한 자료구축, 미래지향적 패션디자인 교육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Fletcher, K. (2008). Sustainable fashion & textiles: Design journeys, London: Routledge, pp.96-134.
- 2) Fletcher, K & Grose, L (2012). Fashion & sustainability design for change, London: Laurence King, pp.132-152.
- 3) The ecoclic design award. Zero-west design technique, 자료검색일 2015. 7. 21. <http://www.ecoclicdesignaward.com>
- 4) Rissane, T. (2013). Zero-waste fashion design: a study at the intersection of cloth, fashion design and pattern cutting, doctorate thesi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p.46.
- 5) Ibid., pp.45-46.
- 6) Ibid., pp.33-34.
- 7) 미크 리우 공식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5. 4. 1. <http://www.markliu.co.uk/>
- 8) Roberts, J. (2013). Free cutting by Julian Roberts, Published online. 자료검색일 2015. 4. 1. <http://timorissanen.com>
- 9) 티모 리사넨 공식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5. 4. 1. <http://timorissanen.com>
- 10) 티모 리사넨 공식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5. 4. 1. <http://timorissanen.com>
- 11) 박혜원 (2012). 친환경 패션 산업 동향과 쓰레기 발생 감량화(zero-waste)를 위한 실험적 디자인 사례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6(4), pp.29-45.
- 12) 국혜승 (2014). 지속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66-87.
- 13) 조신원 (2015). 교육적 관점에서의 Zero-waste 패션디자인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개발, 복식, 65(4), pp.91-108.
- 14) 이세리 (2011). 사회적 실천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디자인학연구, 100(25), pp.167-178, p.173.
- 15) McQuillan, H., Rissane, T. & Roberts, J. (2013). The cutting circle: How to make challenging design, RJTA, 17(1), pp.39-49.
- 16) Carrico, M. & Kim, V. (2014). Expanding zero-waste design practices: a discussion paper, Internatinal Journal of Design, Echnology and education, 7(1), pp.58-64.
- 17) Rissane, T.. op.cit., p.35.
- 18) 파츠파츠 공식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5. 3. 23. <http://www.parts-parts.kr>
- 19) 임선옥은 2010년, 2012년, 2013년 3년간 '서울즈 텐 소울'에 선정되어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
- 20) 김상현 (2015. 3. 23). 임선옥 'PartspARTs'패션으로 시공을 넘다, TIN뉴스, 자료검색일 2015. 12. 29.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9601
- 21) 박미향 (2014. 2. 6). 소개 하나에 집착? 이것만으로도 요리할 게 너무 많죠, 한겨레매거진, 자료검색일 2015. 3. 23.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622804.html
- 22)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어: 네오프렌) 검색일 2015. 11.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6359&cid=40942&categoryId=32404>
- 23) 황인영 (2015. 4. 6). 그것이 알고 싶다, 네오프렌, 패션넷코리아, 자료검색일 2015. 10. 12. http://www.fashionnetkorea.com/trend/trend_story.asp
- 24) Ibid.
- 25) 박미향 (2014. 2. 6). op.cit.
- 26) 이유진 (2012. 4. 18). 디자이너 임선옥-크리에이터의 생각이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공간, 레이디경향, 자료검색일 2015. 3. 23. <http://lady.khan.co.kr/khlady.html?mode=view&code=4&artid=201204181620321&pt=mv>
- 27) Fletcher, K. & Grose, L. op.cit., pp.128-130.
- 28) Gwilt, A. & Rissanen, T. (2011), Shaping sustainable fashion: Changing the way we make and use lothes, London, Washington DC; Earthscan, p.119.
- 29) Ibid., pp.119-121.
- 30) Fletcher, K. op.cit., pp.161-182.
- 31) 파츠파츠 공식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15. 3. 23. <http://www.parts-parts.kr>
- 32) 임선옥 (2015. 11). 네오프렌 어디까지 가능한가?,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성남.
- 33) 임예성 (2013. 10. 6). 임선옥 디자이너 Partsparts, Maiden Noir, 자료검색일 2015. 10. 12. <http://maidennoir.co.kr/1411>
- 34) 김상현 (2015. 3. 11). Meet the Partsparts Innovation come from Paris, Korea fashion news, 자료검색일 2015. 3. 23. http://koreafashionnews.com/sub_read.html?uid=1051§ion=sc1§ion2=
- 35) 김희선 (2013. 1. 24). 임선옥 '파츠파츠', 부분이 모여 예술로 완성되다,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15. 3. 23.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30124092136781>

Zero-Waste Design of PartspARTs IMSEONOC

Chung, Ha Jeong · Park, Ju H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raft Design, Kei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In the contemporary fashion industry, activities for sustainability to recover ethicality are expanding their ideal from the initial 'life extension of products' to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raising values'. Methodologies of nature-friendly design having modern refinement are being researched for environment-friendly consumers in various fields. This study aims at deriving characteristics of a brand PartspARTs IMSEONOC to practice zero-waste design for fashion sustainability through social sympathy based on ethical fashion philosophy of fashion designers. Through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nd interview with a designer, it derived brand characteristics of PartspARTs IMSEONOC in terms of materials, manufacturing techniques, creative use of flat pattern, sustainable management for zero-waste design, PartspARTs IMSEONOC developed and utilized a material and grafted a high-pressure bonding method to high fashion considering a characteristic of the material. Besid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zero-waste cutting method, both commercial and decorative design was realized effectively through pattern segmentation and textile exchange. On the other hand, PartspARTs IMSEONOC showed valuable design production philosophy, reusing textile wastes from manufacturing and pursuing the slow fashion with consideration on environments and ethical perception. PartspARTs IMSEONOC drew design inspiration from a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through collaboration, developed technologies continually so constructed a brand image with increased synergy effect of marketing.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d present ethical practice by modern fashion through engagement, constructed data on commercial zero-waste design methodologies and suggested a guideline for future fashion design education.

Keyword : PartspARTs IMSEONOC, zero-waste design, neoprene, high-pressure bonding method, slow fashion